

Asahi, 한국에 2억4000만달러 투자

산자부, 일본기업 8사 4억8000만달러 투자유치 ... FPD 합작투자 고려

산업자원부가 6월8일 일본 도쿄에서 현지 기업과 벤처캐피털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한국 투자환경 설명회 및 투자조인식에서 8개 일본기업과 4억8000만달러의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발표했다.

산자부에 따르면, Asahi Glass는 앞으로 4년 동안 2억4000만달러를 투자해 경북 구미시에 LCD 핵심부품인 유리기관 생산공장을 설립키로 했고, NH Techno는 1억6000만달러를 들여 LCD 부품공장을 건설하기로 합의했다.

또 아미타는 산업용 폐기물 재처리 시설에 3000만달러, 종합건설기업인 요리가미와 반도체 Conductor 생산 기업 N사가 각 1000만달러, 정밀기계용 금속제품 제조사인 H사가 300만달러를 투자키로 하는 투자의향서(LOI)를 체결했다.

이밖에 한국의 J사와 일본의 S사는 양측이 공동투자해 평면디스플레이(FPD) 분야의 핵심부품을 생산하는 합작법인을 설립키로 합의했다.

이회범 산자부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일본 양국의 상호투자 증대가 양국 경제협력 강화와 무역수지 불균형을 개선하는 주된 방안”이라며 일본기업들의 한국투자를 당부했다.

한편, KOTRA 주관으로 일본기업의 기술 및 자본 유치를 희망하는 국내 중소 벤처기업들과 일본기업의 투자유치 상담회가 개최돼 120여건 1억1000만달러 상당의 투자상담이 진행됐다. <조인경 기자>

<화학저널 2004/06/10>